

大學文化의 이모저모

金 顯 中

(公州教大 音樂教育科)

이제는 완전한 봄이다. 연구실에서 강의실로 가다보면 활짝 피어있는 진달래와 목련이 봄내음을 물씬 풍길 뿐만 아니라 잔디밭에 삼삼오오 푸리지어 담소를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옷차림과 얼굴빛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대학가가 외압에 의해 통제되기도 했지만, 지금의 대학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학생들은 교복대신 간편한 복장으로 강의를 듣고 자기 구미에 맞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 또한 각 대학마다 축제를 열어 젊음의 열기를 발산하며 젊음을 마음껏 파시한다. 지금은 학생들의 이러한 축제를 '대동제'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축제가 과연 올바른 모습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는가? 과연 학생들이 부르는 大同祭라는 명칭 그대로 학교 구성원 모두 함께 참여하는 잔치인가? 나는 이 글을 통하여 축제를 포함한 大學文化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 미흡하나마 문제해결 방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대학문화는 그 다양성 때문에 모든 면을 살펴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축제, 대자보 및 강의실 문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대학 祝祭文化의 문제점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잔치의 目的과 그에 맞는 形式에 대한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춤과 노래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이라 했다. 이를 증명하듯 각종 잔치에는 춤과 노래가 분위기를 돋구었고 잔치의 목적에 맞는 형식들이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대학축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학축제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목적에 맞는 형식은 어떠한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지금의 축제문화를 들여다보자.

축제기간의 대학은 말 그대로 유흥의 도가니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주점이 준비하고 학생들은 마련된 행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주점마다 자리를 메워 술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다. 게다가 밤늦도록 교정을 어지럽히는 고성방가는 술주정의 극치를 달린다.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적 목표와는 거리가 먼 단순하고 내용없는 유흥적인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 덧붙여서 지금의 축제는 교수·교직원들과는 거리가 먼 學生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일반 교육과정은 학교당국이 고삐를 쥐고 있지만 축제는 학생들만의 기획과 집행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축제문화를 연구하여 教育計劃의 일환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즉, 대학축제는 전공별 교수 연구실로부터 시작되어 교수·학생·학교당국이 함께 알차게 꾸려나가

야 한다는 얘기다. 오늘날 난장판이 되어버린 축제물 보는 기성세대들은 학생들이 향락적·소비적 운운하며 뒷전에서 걱정만 하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주의주장을 닛두리하는 태도는 스스로 학교의 主體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학문화의 모든 면이 그러하듯이 대학축제 또한 대학의 모든 構成員이 함께 고민하는 속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하는 共同文化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축제는 교수·교직원·학생이 올바른 내용과 형식을 공동연구하고 연구의 성과물들을 각 대학별로 교환·교류함으로써 모범적인 사례를 폭 넓게 전파·공유하는 가운데 내실있는 학교행사로 자리잡을 것이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연구활동들을 교수·학생·교직원으로 구성된 '축제문화연구회'가 꾸준히 수행해 나간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축제는 敎育計劃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당국과 학생 간의 진지한 대화·토론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제 앞서 제기한 축제의 목적과 그에 맞는 형식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첫째로 대학축제의 目的은 敎育의 연장으로서 아카데미즘적 활동의 총집결장이며, 동시에 젊음의 열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잔치마당이어야 한다. 둘째로 그에 맞는 절차로서 축제는 敎育계획으로 수립되어 교수·교직원·학생들로 구성된 '축제준비위원회' 혹은 '축제연구회' 등의 부단한 연구 속에서 올바른 내용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참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대학문화의 한 場을 이루어야 한다. 모든 대학의 구체적인 여건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앞의 의견이 약간 추상적이기는 하나 대학마다 실정에 맞는 축제문화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참신한 모델을 정립하기는 매우 힘들다. 축제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축제문화를 개선하는 진취적인 방법으로는 축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해 봄직도 하다.

다음은 大字報文化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대자보가 학교를 어지럽히고 있다. 개강하자마자 서클 모임을 알리는 벽보, 새로운 회원 모집 광고부터 총학생회의 정치적 내용을 담은 선전물까지 학교에 있는 빈 공간이란 공간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심지어 강의실 내부 벽이나 진입로 바닥까지 총천연색 대자보가 현란하게 붙어 있다. 더구나 붙인 지 오래되었거나 비에 맞아서 선전물이 보기 흉하게 너털거리는데도 누구 하나 떼지 않는다. 대학은 表現의 자유가 어느 곳보다도 자유로운 곳이다. 그러나 자유롭게 표현하는 만큼 대학의 '환경'을 고려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황당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무책임한 대자보 문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학생들의 무절제한 선전물 부착과 그에 따른 책임없는 닛치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전물을 붙일 수 있는 자보판과 벽보판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다. 어느 대학이든 선전물 부착판이 충분하지는 않다. 실사 있다 학더라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어 외면당하기 일쑤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의실 복도마다, 대학 진입로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알림판을 넉넉하게 설치해 준다면 아무 곳이나 보기 싫게 너털거리는 선전 홍보물들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각이라고 생각한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자각과 함께 지정된 벽보에 선전물을 붙이는 절제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講義室文化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강의실에 들어 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우선은 무슨 낙서가 그리 많은지 시켜면 벽 때문에 기분이 불쾌하다. 또하나 교수가 수업을 시작하든 말든 열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

강의실은 교수와 학생 간에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교수활동은 교수 개인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 역시 지성인답게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강의를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의 본業인 교수와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재의 강의실 풍토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그 해결방도를 찾아보고자 한다.

벽에 쓰여진 지적분한 낙서는 주로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커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다면 교수는 남의 지식을 훔치는 일을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시험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내도록 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풀도록 한다면 어떨까? 교수는 평가 기준을 학생 스스로 출제 한 문제의 난이도와 연구 내용의 깊이에 두면 될 것이다. 그러면 커닝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교수의 노력이 여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학생들의 커닝은 다소 없어지고 한층 심화된 학문에 대한 욕구를 도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강의실 낙서와 더불어 학생들의 공공시설물 사용 태도 역시 꼭 지적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의 강의실을 보라. 책·걸상은 흠집과 낙서투성이다. 실습실이나 그밖의 공공기물도 마찬가지로 상처투성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아껴써야 오래도록 잘 쓸 수 있다. 학생들은 무책임하게 공공시설물을 남비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물건같이 사용하여 후배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강의시간중의 학생과 교수 간의 禮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강의는 교수·학생 간의 진지한 토론의 장이어야 한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수는 교육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학생들은 진지하게 참여해야 한다. 또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 단정한 몸차림, 격식있는 말씨를 갖추어야 하는 ‘강의실 예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부터인가 그 선을 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복장은 집에서나 입을 만한 차림새도 있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나 주고 받을 법한 말투도 나온다. 이와 같은 강의실 예의는 교수·학생들이 서로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이다.

지금까지 대학 축제문화, 대자보 문화, 강의실 문화에 대하여 거론했다. 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만 머물렀으나,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임을 밝힌다. 앞서도 말했듯이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학문화의 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다. 그 중 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자 했던 것은 그 누구를 탓하자는 의도가 아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수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대학을 집으로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누구나 家庭을 이루고 산다. 가정이란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제 구실을 다한다. 그 세 가지 요소란 식구, 살림살이, 가정적 분위기이다. 식구란 가장을 포함한 그 집의 구성원들이다. 집안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집의 기둥이요, 대들보인 가장이다. 그런데 가장이 가정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무책임하다면 그 집은 어떠하겠는가? 오늘의 대학은 가장이 없는 집같다. 교수는 강의실에서 강의나 하는 ‘지식전달자’로 전락한 것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교수는 대학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학생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 대학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가꾸어야 할 家長이다.

오늘날 대학의 주인은 누구이며 과연 그들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제부터라도 교수들은 학생들을 보고 걱정만 하는 방관자적 위치에서 벗어나 건강한 大學文化 정립을 위하여 솔선 수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